

경제통통

FOCUS

- 서울시, 대학밀집 '신홍합'에 그물망 청년창업 인프라
- 서울시, 핀테크 기업들과 공동 협력사업 개발 논의
- 세계 럭셔리 패션업계 오피니언 리더 500명 서울에 모였다

ZOOM IN

- 서울시, 자영업자 60만 시대…'소상공인 위기탈출법' 공개
- 우리 가족 기차타고 농촌체험 떠나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나성조 sjna@seoul.go.kr

FOCUS I 01

서울시, 대학밀집 '신홍합'에 그물망 청년창업 인프라

서울시는 청년창업이 활발하고 유망한 지역의 열기를 더욱 북돋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 대학·청년 밀집지역인 신촌역-홍대입구역-합정역 주변, 일명 '신-홍-합 지역'의 창업인프라를 그물망처럼 더 촘촘히 하고 대학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모텔을 매입해 예비·초기 창업가에게 제공하는 '창업모텔(가칭)'이 내년 상반기에 서대문구 연세로에 첫 선을 보이고, 2017년 4월 청년창업 컨트롤타워인 '서울창업허브'가 마포구에 개소한다. 서울창업허브는 300여 개 입주공간을 추가로 제공해 강남에 집중돼 있는 민간 창업지원인프라와의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과의 연계·접근성을 강화해 청년들이 문턱 없이 이용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시범 조성 중인 오픈형 '서울창업카페'도 1호 숭실대입구역(2015년 12월오픈)에 이어, 2호 신촌점(약 133㎡규모, 서대문구 창천동 지하보도)이공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지난 3월 22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홍합지역 4개 대학교(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홍익대) 총장과 만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신-홍-합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서밋(summit)을 개최하고 공동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서밋은 서울시가 청년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대학과 함께하고, 각 대학 현장의 다양한 제안사항과 아이디어, 시 차원의 정책·사업을 상호 공유해 실질적 협력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업무협약에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 ▲맞춤형교육 ▲청년창업 지원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구축 등에 대한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신-홍-합 지역' 창업인프라 집중 조성과 같이 지역 특성에 걸맞고 지역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실질적 정책 해법들을 실행해 나아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과 대학의 다양한 제안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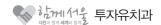
서울시, 핀테크 기업들과 공동 협력사업 개발 논의

핀테크 업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서울시에 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강남 팁스타운 회의실에서 박원순 시장과 국내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7개사 대표 및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핀테크 대표단 서밋」을 개최하였다.

참여기업은 국내 핀테크 산업의 각 분야에서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KTB솔루션, 스트리미, 8퍼센트, AIM, 팝펀딩의 7개사다. 이번 핀테스 서밋에서 핀테크 회사의 대표들은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시는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시범사업 아이템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한 서밋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하였다. 서울시는 ①핀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 ②핀테크 스타트업 창업활성화 ③핀테크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여의도와 영등포에 핀테크 특구 지정 등 듀얼 클러스터 구축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성장 지원 ▲핀테크해커톤 개최 ▲핀테크 인력 양성·교육 실시 ▲해외 핀테크 엑셀러레이터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핀테크산업 인프라 지원의 하나로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관련 빅데이터를오픈하여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여 금융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핀테크 클러스터 구축, 핀테크 스타트업 양성 등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FOCUS I 03

세계 럭셔리 패션업계 오피니언 리더 500명 서울에 모였다

전 세계 3천8백만 명이 넘는 온라인 독자를 보유한 인터내셔널 보그 에디터이자 세계 패션계의 거장 수지 멘키스(Suzy Menkes)가 주관·진행하는 '제2회 컨테나스트 럭셔리 콘퍼런스(Conde Nast International Luxury Conference)'가 20일(수) \sim 21일(목) 양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이 기간에 세계 30개국 럭셔리 패션업계 오피니언 리더 500여 명이 서울을 찾았다.

4월 20일(수)~21일(목) 양일간 DDP와 신라호텔에서 열린 '컨데나스트 인터내셔널 럭셔리 콘퍼런스'는 패션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세계 럭셔리 패션 시장의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적인 행사다. 콘퍼런스에는 지안 자코모 페라리스(Gian Giacomo Ferraris) 베르사체 CEO, 올리비에 루스텡(Olivier Rousteing) 발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제이슨 우(Jason Wu) 보스 여성복 아티스틱 디렉터, 가수이자 사업가인 윌.아이.엠(Will.i,am) 등 패션계 인사가 대거 참석하였다.

콘퍼런스에서는 '럭셔리 산업의 미래', '럭셔리 마켓의 젊은 소비층 공략법', '아시아 뷰티마켓의 힘' 등을 주제로 한 연설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특히, 최첨단 IT 중심지 서울과 한류열풍과 함께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K—패션의 성공 공식이 소개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콘퍼런스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패션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200여 개에 달하는 기업과 기관 중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지 않은 40여 곳과 개별미팅을 추진해, 투자유치 환경과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투자 의향을 적극 타진하였다.

서울시는 전 세계 패션시장을 이끄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적인 행사인 컨데나스트 인터내셔널 럭셔리 콘퍼런스의 개최를 통해 서울이 글로벌 브랜드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패션도시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 럭 셔리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수지 멘키스 같은 세 계적인 패션계 거장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ZOOM IN I 01

서울시, 자영업자 60만 시대… '소상공인 위기 탈출법' 공개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재계약 등 운영관리, 매출, 세무 등 현경영 상태를 자가진단하고, 실제 해결사례를 통해 각종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현명한 소상공인의위기탈출 매뉴얼」을 제작해, 10일(일) 온·오프라인에 공개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소상공인 맞춤형 매뉴얼 제작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또한, 매뉴얼을 토대로 제작한 웹툰 「소상공인 위기탈출 레시피」도 함께 공개했다. 퇴직 후 음식점을 창업한 40대 '소상공 씨'가 매출 하락, 경쟁자 출현 같은 위기상황마다 '나경영 소장'의 컨설팅을 듣고 하나씩 극복하여 성공하는 과정을 만화로 엮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매뉴얼은 ①서울의 소상공인 얼마나 있나? ②소상공인에게 위기관리란? ③점포운영, 기본원칙을 지켜라 ④체크리스트로 점검하고 위기대응 사례로 확인하고 ⑤소상공인 지원기관과 지원정책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매뉴얼과 웹툰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울산업 진흥원 등에 비치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 또한, 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archives/63752)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 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Z00M IN I 02

우리 가족 기차타고 농촌체험 떠나요!

서울시는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유치원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우수 농산물을 수확하고, 요리실습도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도시가족 주말농부'를 운영한다.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인원을 2,500명으로 확대하여 총 33회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일요일에 진행하며 토요일은 버스로, 일요일은 기차를 타고 체험을 떠난다.

7, 8월 방학기간에는 1박 2일 농촌체험 캠프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연 1회씩 진행했던 기차 체험 프로그램을 10회, 1 박 2일 농촌체험 캠프를 5회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첫 행사는 4월 9일 (토) 연천 나룻배마을에서 인삼 수확, 가마솥 밥 짓기, 감자전 만들기, 나룻배 타기와 같은 다양한 체험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

1인당 참가비는 버스 1만 2천 원, 기차 1만 7천 원, 1박 2일 농촌체험캠프 3만 원으로 유치원생 이상인 자녀를 포함한 서울시민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인원은 1회당 80명 내외(20여 가족)이며 3월 29일(화)부터 서울시(www.seoul.go.kr)와 食사랑農사랑(www.식사랑농사랑.com)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서울시는 가족단위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에 도움을 주고, 시민들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이해하는 소 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